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 : 가계용) 및 추가약정서(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추가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하 ☐ 은퇴자 ☐ 주부 ☐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 연체 등 정보 등재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출이자율', '수수료 등 비용', '유익사항의 대출기한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연체 등 정보등록' 이 포함됩니다.

상품개요

· 상품명 : _____ · 대출기간 : 취급 후 _____ 개월
· 대출신청금액 : _____ 원 · 채권보전 : ☐ 담보, ☐ 기타
· 적용금리 : 연 _____ % (금리적용방식 : 고정금리)
· 예상 실질유효금리 : 연 _____ % (예상 실질유효금리는 적용금리와 동일합니다.)

※ 실질유효금리는 고객이 부담할 대출이자율과 대출취급 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이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조기상환수수료, 기타 실비 성격의 일부 수수료(조기상환 시 고객이 부담하는 시세 감정료) 및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은 실질유효이자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약정액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

대상고객

-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천8백만원 이하자는 8천만원 한도)
- 손익공유형 모기지 :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천8백만원 이하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수익공유형 모기지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후 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모기지 : 20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연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모기지 : 최초 5년간 연 1.0% 고정금리, 5년 이후 연 2.0% 고정금리

이자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조 바랍니다.

대출금 상환방법

- 대출금의 일부 상환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취급된 대출금액의 최대 50% 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 전까지 고객이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의 경우 원리금분할상환의 마지막 회차는 자동이체로 상환되지 않으며, 고객님의께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환하셔야 됩니다.

주택매각계획 통보의무

-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후에 매각 및 기타 사유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매각예정일자, 예정매각가격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각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상환시점의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하 감정평가기관") 시세감정 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단, 통보 없이 매각하더라도 실거래가격(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 시세감정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매각가격의 검증

- 은행은 "매각계획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매각계획서상 예정가격이 시세감정가격보다 5%(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또는 1천5백만원(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이상 적게 신고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서명한 실거래가 확인서를 은행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자는 주택을 매각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매각가격이 시세감정 가격보다 5%(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또는 1천5백만원(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이상 적게 기재된 경우 은행은 매각가격을 검증합니다.
- 은행은 매각가격 검증결과, 실거래가 신고의무에 있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세감정 가격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최종 처분손익으로 확정합니다.
- 고객이 처분(평가)손익을 최대한도로 정산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 및 은행의 매각가격 검증을 생략합니다.

임의처분 금지사항

- 은행의 동의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 후 본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상품 설명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택 구입(투자) 권유나 특정 주택에 대한 구입(투자) 권유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상기 내용을 확인함

고객확인 : 20 (서명/인)

자필

직원확인 : 20 (서명/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매수 청구권

- 고객이 제출한 "매각계획서"의 예정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보다 1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에게 **매각 예정일 2주 전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통지**하고, 고객이 제출한 예정 매각가격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고객이 처분손익을 최대한도로 정산 요청하는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확정

- 처분손익(평가손익)은 1) 주택매각 시에, 2) 매각 없이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경우에는 상환 시에, 3)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만기 시에 확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추가약정서 제9조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 시에는 추가약정서 제1조 제⑥항에 따라 처분 손익을 확정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

- ① 채무자가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 대출원리금에 추가하여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업무수탁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② 상기 ①항에 따라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시 또는 대출만기 시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을 계산하고, 매입가격대비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 비율을 계산하여 처분손익(평가손익)에 그 해당 비율만큼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처분손익(평가손익) 정산은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 잔액에 연 3.5%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 ③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배분 예시

- ☞ 주택 매입가격 2억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20년 만기 보유, 금리 연 1.5%, 대출금액 1억4천만원의 경우

가. 처분가격이 3억원인 경우

(단위:원)

주택 매입가격(0년)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300,000,000
처분손익(A)	100,000,000
대출평균잔액 (매입가 대비 대출평균잔액 비율)	대출평균잔액 76,944,123 (76,944,123 ÷ 200,000,000 = 38.47%)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38,472,062 (=100,000,000 * 38.47%)
기금이익 상한(C)	53,860,886 (= 대출평잔*20년*연3.5%)
처분이익 환수액 = min(B,C)	38,472,362
주택구매자 이익	61,527,938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처분가격이 4억원인 경우

(단위:원)

주택 매입가격(0년)	2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400,000,000
처분손익(A)	200,000,000
대출평균잔액 (매입가 대비 대출평균잔액 비율)	대출평균잔액 76,944,123원 [76,944,123 ÷ 200,000,000 = 38.47%]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76,944,123 (= 200,000,000 * 38.47%)
기금이익 상환(C)	53,860,886 (= 대출평균*20년*연3.5%)
처분이익 환수액 = min(B,C)	53,860,886
주택구매자 이익	146,139,114

※ 대출평균잔액 및 비율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

- 채무자가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우리은행(주택도시자금 업무수탁은행)과 정산 하기로 합니다. 정산은 대출비율(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손익의 대출 비율 상당액은 우리은행(주택도시자금 업무수탁은행)에 귀속됩니다.
- 상기 ①항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 하여 고객이 지급하며,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시에 원리금 납부 금액에서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배분 예시

☞ 주택 매입가격 3억원, 20년 만기까지 보유, 대출금액 1억2천만원의 경우

가. 처분가격이 2억5천만원인 경우

(단위:원)

주택 매입가격(0년)	3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250,000,000
처분손익(A)	△5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40%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20,000,000 (= △50,000,000 * 40%)
기금 손실	△20,000,000
주택구매자 손실	△30,000,000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나. 처분가격이 4억원인 경우

(단위:원)

주택 매입가격(0년)	300,000,000
주택 처분가격(20년)	400,000,000
처분이익(A)	100,000,000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40%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40,000,000 (= 100,000,000 * 40%)
기금수익	40,000,000
주택구매자 이익	60,000,000

※ 대출금액 및 비율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조사 가격이 매입가격대비 30% 를 초과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도말 한국 부동산원 시세조사 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 중 대출비율 (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130% 이상으로 **해당 주택에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 잔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④항에 따라 은행은 처분손익(평가손익)의 정산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시세감정비용의 부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 시세조사비용 및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 비용은 대출취급 시 또는 만기상환 시에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개시일 이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중도(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대출일~상환전일/365(윤년366))**
 - 수익공유형 모기지 조기상환수수료율 : 3년 이내 (연 1.8%)
 - 손익공유형 모기지 조기상환수수료율 : 3년 이내 (연 2.3%)

〈중도(조기)상환수수료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기간	중도(조기)상환수수료	처분이익환수
3년 이내	○	X
3년 초과	X	○

수수료 등
비용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

- 근저당권설정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 원
 - ☞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감액)등기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 원
 -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 원
 - ☞ 고객과 은행이 균등분할하여 부담합니다.

- 인지세 : () 원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비용 : 항목() 금액()%,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 본 상품설명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기금운용계획」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본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기본약관 제4조의 3의 위법 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우리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본인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의 이자계산방식, 처분손익(평가손익) 배분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일반 모기지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대출을 선택했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자필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택함

고객확인 : 20 (서명/인)

직원확인 : 20 (서명/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소유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돌아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지연배상금률**

구 분		적용 지연배상금률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하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4%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 상실 후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4%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 연 5%

☞ 다만,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인은 주택구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결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객

고객확인 : 20 (서명/인)

자필

본인의 책임 하에 결정함

직원확인 : 20 (서명/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 상품은 대출 만기 또는 상환 시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정산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납입일에는 연체 가산금리(지연배상금·약정이자)만 적용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 연체이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전액(일부)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 말소(감액)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취급된 대출금 50%의 130% 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감액가능)
→ 말소(감액)비용 : 고객부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조회 및 연체정보 등록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체 등' 정보 :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황, 보증현황 등
- '연체 등' 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자산기준 초과시 가산금리(또는 금리변경)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업무수탁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상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의 주요 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강화된 설명의무이행 대상으로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되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자필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직원확인 : 20 . . . (서명/인)